

##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 기본 심리특성의 영향: 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윤광일 | 숙명여자대학교

###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유권자 정치선호 형성과 선택의 심리 과정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위해 제19대 대통령선거 후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치적 사고와 행동을 예측하는 기본 심리특성 변인으로 슈워츠 개인 기본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의 관계와 정당과 후보 선택에 미치는 두 변인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이론적으로 정치이데올로기 정향에 선행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온 개인 기본가치는 정당일체감과 후보 선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에 후보 선택 집단과 정당선호 집단에 따른 정치이데올로기 정향 차이는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보 후보와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선호집단과 보수 후보와 정당으로 알려진 홍준표와 자유한국당 선호집단의 진보-보수 성향차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집단 간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정치이데올로기 정향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당일체감은 사회경제변수와 출신지역을 통제한 McFadden 조건부 로짓 모형에서 후보 선택에 독립적 영향을 미친 반면에 기본가치는 대체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변화에 대한 개방, 보수, 자기초월, 자기고양 등의 상위차원 기본가치는 대체로 정당과 후보 선택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사회경제 변수 중 세대는 정치이데올로기는 물론이고 가치와도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났다. 나이가 든 세대일수록 자신을 보수 정치 성향으로 평가하고 있고, 보수 성향과 관련이 있는 보수 가치에 대한 지지도 높은 반면에 진보 성향과 관련이 있는 변화에 대한 개방 가치에 대해서는 그 지지도 낮았다. 관찰 결과의 함의와 한계를 논의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주제어** | 슈워츠 기본가치, 정치이데올로기, 제19대 대선

\* 이 글은 통일연구원의 2017년도 일반연구과제 “통일 이후 통합방안(V)”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I. 들어가며

유권자는 어떤 심리 과정을 거쳐 정치태도를 형성하고 또한 어떤 심리 과정을 거쳐 정당 또는 후보 선택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이에 대해 전통적으로 정치학자들은 정치인과 정당의 선호가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하향식(top-down)’ 접근 방식을 취해 온 반면에 심리학자들은 유권자의 성격과 인지와 동기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된 선호와 선택이라는 심리 과정 곧 ‘상향식(bottom-up)’ 접근을 해왔다. 최근에 와서는 두 접근 방식을 통합하여 유권자의 태도 형성, 판단, 그리고 선택 행동 기저에 있는 기본 심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론적·경험적 설득력을 얻고 있다(Jost et al. 2009). 또한, 현실 정치에 있어서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권자 수준에서도 비중 있게 나타나고 있는 ‘정치 사인화(personalization of politics)’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권자 심리 과정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정치의 사인화 현상에 대한 연구는 정치인 개인 특성과 자질이 유권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유권자 자신의 성향과 가치 그리고 정치이데올로기가 정치태도 형성 그리고 정당 또는 후보 선택에 미치는 심리 과정을 밝히는 연구는 아직은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발전시킬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Caprara and Zimbardo 2004). 아울러 최근 사회 및 정치심리학적 접근은 서구 유권자 설문 및 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정치태도와 선호가 논리적 사고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성격요인과 가치 등 개인의 근본적 심리특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라는 경험적 증거를 상당수 제시하고 있는데(김현정 외 2015), 이 결과가 한국 유권자 심리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다.

본 연구는 유권자 정치선호 형성과 선택의 심리 과정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지지하면서 한국 유권자 선거행태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지 않았던 정치심리학적 접근에 바탕을 두고 유권자 심리 과정에서 정치 사인화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 실시된 확률표집에 기초한 면접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정치적 사고와 행동을 예측하는 심리적 변인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의 관계와 정당과 후보 선택에 미치는 두 변인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sup>1)</sup>

1) 이 설문조사 자료는 2017년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31일 동안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시도는 기존 한국 유권자 선거행태 연구와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띤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는 진보와 보수<sup>2)</sup>의 세대별·계층별·정당지지별 분포와 변화 그리고 이의 정당 및 정치인 선택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체로 진보-보수라는 단일 차원으로 접근해온 정치이데올로기 기저에 어떤 다차원적 심리특성, 특히 가치를 중심으로 한 성격 요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유권자 정치이데올로기를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단일 설문 자기평가(self-placement)나 연구자가 사전 정의한 정책 선호 방향에 따라 일련의 정책 선호의 합 또는 평균으로 만든 지수를 사용해 왔는데 이는 무엇보다 정치이데올로기 영향 연구가 동어반복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했다. 곧, 정치이데올로기 영향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정책 선호 설명변인으로서 정치이데올로기는 사실 그 선호 자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 기본 심리특성으로서 정치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상위 수준의 심리적 요인으로서 개인 기본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의 관계에 주목하고, 두 심리적 변인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영향을 밝히고자 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이론적·경험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 같은 작업은 기존 정치이데올로기 측정 방식의 이론적 정당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 심리특성으로서 유권자 선호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온 개인 기본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치심리학 논의를 소개한다. 이후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제19대 대선에서 나타난 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와 관계와 이의 정당 및 후보 선택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의 정책적 함의와 한계를 논의한 후,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

종이설문을 이용한 대면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표본 표집은 2017년 5월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기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응답자 수는 1,002명이었다.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이었다.

2) 이 글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좌파와 우파와 각각 서로 교체 가능한 개념으로 쓴다. 또한 인용문에 따라서는 진보나 좌파 대신 자유주의(liberalism)로 쓰기로 한다.

## II. 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

### 1. 가치

개인에게 가치는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신념으로, 여러 가능한 행동 양식, 수단 및 목적 중 무엇을 선택할지에 영향을 끼치는 것(Kluckhohn 1951)이며, 어떠한 행동 양식이나 최종 상태(end-state)가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선호될 만한가에 관한 지속적인 신념이자(Rokeach 1973), 사회적 행위자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상황을 초월하여 바람직하지만 상대적인 중요도에는 차이가 있는 목표들이다(Schwartz 1992). 인간은 생물학적 유기체로서 개인의 욕구, 사회적 상호작용 조정의 필요, 집단의 생존과 복지 필요 등과 같이,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3가지 보편적 요건이 있는데, 가치는 이와 관련된 동기를 표현한다(Schwartz and Bilsky 1987). 가치는 또한 인지적·동기적 구성물(construct)로 성향 특성(dispositional trait)과 함께 생태적(biological) 성격 요소를 구성한다. 맥아담스와 팰스(McAdams and Pals 2006)는 가치를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회역할이라는 구체적 맥락에서 발현되는 ‘특성 적응(characteristic adaptations)’의 예로 들면서 상황과 시간을 초월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드러나는 개인차 성격 변인인 성향 특성과 구분한다. 한편, 가치는 그 기저에 있는 욕구나 동기와는 달리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특성이 있고, 인지적 내용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여 의사소통에 쉽게 쓰인다(Bilsky and Schwartz 2008).

대체로 심리학에서의 가치 연구는 우선 가치의 심리 과정 상 기능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춰왔다. 기능적으로 가치는 자신과 타인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설명하며 예측하는 데 쓰이는 원칙이자 기준이다. 가치는 대상이나 특정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안정적인 신념으로서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 가치 연구는 또한 거시적으로 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심리적 유사성과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과의 심리적 차이의 근원을 밝혀내는 경험적 비교문화연구로 진화해왔으며, 특히 슈워츠(Schwartz) 이후 대규모 다국가 설문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보편적 가치내용과 구조에 관한 체계적 이론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비교문화심리학의 분야로 발전해 왔다. 다시 말해서 슈워츠와 동료의 후속 연구는 기존 가치 연구의 가치 측정 및 분석 수준을 거시 문화 차원에서 개인 차원으로 바꾸었고 다양한 문화권에 모두 적용 가능한 보편적 가치 유형의 구조를 경험적으로 밝혀내고자

〈표 1〉 기본가치의 개념적 정의와 하위유형\*

기본가치	정의	대표적 가치항목
1. 안전(Security)	자신, 자신과 관계있는 사람, 사회의 안전, 조화, 그리고 안정	가족의 안전, 나라의 안전, 사회질서, 소속감, 건강한, 청결한, 호의에 보답
2. 동조(Conformity)	사회적 기대와 규범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 성향, 및 충동의 자제	순종하는, 부모와 연장자들을 공경하는, 공손, 자기수양
3. 전통(Tradition)	전통문화 또는 종교가 제시하는 관습 및 아이디어의 존중, 수용, 이행	전통에 대한 공경, 중립적인, 겸손한, 인생에서 자신의 몫을 받아들이는, 헌신적인
4. 박애(Benevolence)	가까운 사람들의 복지 보존과 향상	영적인 삶, 의미 있는 삶, 성숙한 사랑, 참된 우정, 충성스러운, 용서하는, 도움이 되는, 정직한, 책임감 있는
5. 보편주의(Universalism)	인류와 자연 복지에 대한 바른 이해 및 인식, 관용, 보호	평등, 내적조화, 세계평화, 자연과의 조화, 지혜, 아름다운 세상, 사회정의, 관대한, 환경을 보호하는
6. 자율(Self-direction)	선택, 창조, 탐색 등에 있어서 독립적인 사고 및 행위	자유, 자존감, 프라이버시, 창의성,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선택하는, 독립적인, 호기심 있는
7. 자극(Stimulation)	흥분, 신기로움, 도전	다채로운 삶, 재미있는 삶, 대범한
8. 쾌락(Hedonism)	자신을 위한 즐거움과 감각적인 만족	쾌락, 즐기는 삶, 방종한
9. 성취(Achievement)	사회기준에 따라 드러나는 유능함을 통한 개인적 성공	영향력 있는, 야심적인, 유능한, 지적인, 성공적인
10. 권력(Power)	사회적 지위와 위신, 통제력, 또는 사람과 자원에 미치는 지배력	사회적 힘, 부, 권위, 사회적 인정, 체면을 유지하는

\* 김연신·최한나(2009) 〈표 1〉과 슈워츠 외(Schwartz et al. 2012) 〈Table 1〉을 통해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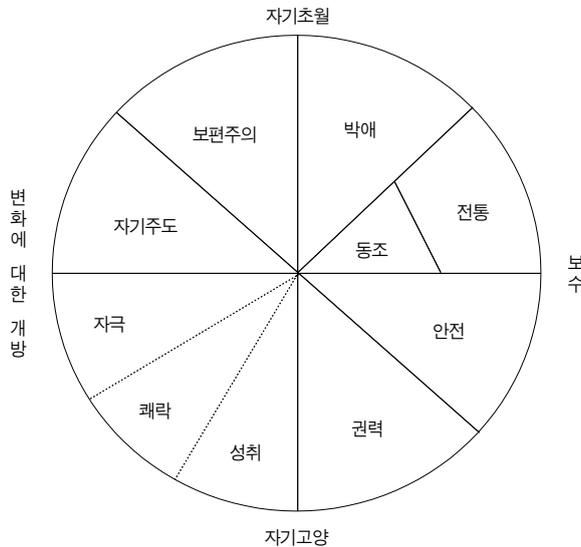
했다(김연신·최한나 2009).

슈워츠(Schwartz 1992)는 선형적(*a priori*) 이론화 작업을 통해 개별 가치가 추구하는 동기적 목표에 따라 구분되는 일련의 인간 기본가치(basic value)가 존재하며 이들 가치는 서로 양립하거나 충돌하는 동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관계를 특정 문화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가치의 구조로 명명한다. 씨씨어크와 동료들(Cieciuch et al. 2015)에 의하면, 가치는 성향 특성과 함께 성격 요소로서 인간생태에

바탕을 두기 있기 때문에 가치 구조나 성격 요인 구조가 어느 사회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가치의 본질과 구조는 보편적일지라도 가치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다른 곧 가치의 우선순위 또는 위계가 존재한다(Schwartz 1992). 이와 같은 가치의 보편성과 문화 특수성은 최근 신경과학의 뇌연구에서도 그 근거가 밝혀지고 있다(Brosch and Sander 2013).

슈워츠는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나라별로 광범위하고 다양한 표본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다국가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기본 개인가치 이론’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했다. 그 결과 슈워츠는 어느 문화권이든 내재적 동기에 의해 구분되며 서로 양립하거나 대립하는 또는 독립적인 관계가 있는 10개의 기본가치가 존재함을 밝혀냈다. 10개의 기본가치는 자기주도(self-direction), 자극(stimulation), 쾌락(hedonism), 성취(achievement), 권력(power), 안전(security), 동조(conformity), 전통(tradition), 박애(benevolence), 보편주의(universalism)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정의와 대표적인 세부 가치 항목은 <표 1>과 같다(Schwartz et al. 2012).<sup>3)</sup>

<그림 1> 슈워츠의 동기에 따른 10개 기본가치와 4개의 상위차원 가치구조



3) 슈워츠는 이후 작업에서 자기주도 가치를 사고와 행위로, 동조를 규칙과 대인관계로, 박애를 돌봄과 의존으로, 보편주의를 자연, 배려, 관용으로 나누고 체면(face)과 겸양(humility)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가하여 기본가치를 19개로 세분해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Schwartz et al. 2012; Schwartz 2017).

10개의 개인 기본가치는 가치 간의 관계가 양립가능한지 대립적인지, 가치추구가 개인적 또는 사회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 그리고 불안회피와 자기보호(self-protection)를 위한 것인지 또는 불안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확장(self-expansion)과 성장을 위한 것과 같은 3가지 요인에 의해 보편적 가치구조에서 위치가 결정된다(Schwartz et al. 2012). 슈워츠는 <그림 1>과 같은 원을 이용하여 기본가치의 위치가 반영된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 가치구조를 설명한다. 개별 가치는 원에서의 위치가 멀어질수록 동기 측면에서 관계가 없거나 갈등관계에 놓여있는 것을 나타내고 자기초월, 자기고양, 변화에 대한 개방성, 보수주의 등과 같이 원 밖에 놓인 4개의 상위차원(higher order) 가치에 의해 분류된다. 다만 쾌락은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자기고양이라는 2개의 상위차원 가치의 특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점선으로 경계를 구분한다. 각각의 가치는 표현하는 동기에 따라 개념적으로 구분되긴 하지만, 동기적 연속선(motivational continuum)상에 놓여 있다(Schwartz et al. 2010; Schwartz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가치가 삶의 원칙으로서 대상이나 상황을 초월하여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경험적으로 뒷받침된 이론적 명제가 정치심리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슈워츠가 제시한 기본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 그리고 정치적 선호와 선택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에서 기존 가치연구가 많이 활용해왔지만 설명력과 유용성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온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슈워츠(Schwartz 1992) 이후 지난 25여 년간 높은 수준의 이론적 세련화와 많은 경험적 증거를 축적해 온 선행 가치연구의 성과를 활용하려는 시도이다.

## 2. 정치이데올로기

사회과학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알려진 정치이데올로기는 그만큼 무수히 많은 개념적 정의가 있어 왔다(Jost et al. 2009). 그럼에도 정치학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개념적 정의 중 하나를 제시하자면, 정치이데올로기는 ‘믿음체계(belief system)’로서 “개념(idea)과 태도의 배열조합으로서 그 구성요소가 기능적 상호의존으로 서로 결합, 제약된 것”(Converse 1964, 207)이다.<sup>4)</sup> 곧 정치이데올로기는 정부, 정당, 정치인, 정책 등

4) 이와 같은 가치중립적 접근 외에 유력한 접근 방식으로 정치이데올로기를 전형적으로 현실을 옹호하는, 체계적으로 왜곡된 선전선동의 도구로서 현존 착취체제를 정당화하는 허구의 신념체계로 이해하는, 주로 맑시스트

정치대상에 대한 안정적 신념으로서 단기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정치태도와 달리 논리적 일관성(coherence)과 시간에 따른 일관성(consistency and persistence)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여론 설문조사에 기초한 경험적 연구는 이와 같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곧, 서구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며 논리적으로 일관된 정책선호를 갖고 있지 않으며 시간에 따라 선호도 자주 바뀌며 선호태도와 행동(투표결정) 간의 일관성도 보이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정치이데올로기 정의에 부합하는 유권자의 비율은 나라마다 한 자리 숫자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onverse 1964; Klingeman 1979; Kinder 1998).

조스트(Jost 2006)는 이와 같은 경험적 증거가 2차 대전 후 사회과학계에서 제기되어 온 ‘이데올로기 종말론’을 뒷받침했다고 진단한다.<sup>5)</sup> 그는 설문조사에 기반한 이데올로기 종말론이 무엇보다 정치이데올로기를 정치지식(political sophistication)과 등치하는 오류를 범했고, 시기상 성격, 태도, 인간성 등 심리학 핵심 주제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위기와 겹쳐 학문적인 검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조스트는 동료들과 후속 연구를 통해 최근 경험적 자료들과 심리학 방법론의 혁신은 언론담론에서만 아니라 유권자 수준에서도 정치이데올로기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이데올로기 종말론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고 단언한다. 이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유권자 자기평가를 측정되는 진보-보수 정치이데올로기 성향이 상황변수이자 동기에 영향을 주는 체제위협과 죽음 공포의 현저함 그리고 성격특성 변인인 개방성과 치밀함(conscientiousness)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 투표행태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별성을 나타나게 한다(Jost 2006).

조스트를 중심으로 한 정치심리 접근은 정치이데올로기를 인식, 존재, 관계 동기에 기반 한 ‘동기 또는 기능 하부구조(motivational or functional substructure)’와 사회적으로 구성된 ‘담론 상부구조(discursive superstructure)’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동기 또는 욕구에 근본 바탕을 둔 정치이데올로기 정향이 정당, 후보, 쟁점, 집단 평가 및 선호와 체제정당화 태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동기화된 사회인지(motivated social cognition)’론으로 명명된 이들의 접근이 밝힌 경험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불확실성과 위협 회피 동기와 관련된 근본적 개인차가 사회인지 차이를 초래하

중심의 비판적 접근이 있다(Jost et al. 2008; Jost et al. 2009).

5) 조스트(Jost 2006)에 의하면, 이데올로기 종말론은 이외에도 추상적 좌우 정치이데올로기의 동기 기반과 행동에 대한 영향력 부재, 좌-우 정치이데올로기의 철학적·이론적 차별성 부재, 진보-보수 정치이데올로기 성향을 뒷받침하는 기본 심리특성 차이의 부재 등의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

며, 좌-우 또는 진보-보수 성향(proclivity)<sup>6)</sup>의 핵심적 차이는 사회변화에 대한 옹호 대 저항 그리고 불평등에 대한 수용 대 거부 차원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좌-우 성향 모두 혼란보다는 질서를 저항보다는 동조의 가치를 선호하는 가운데 우파 또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전통, 인습, 질서, 안정, 전통적 가치, 위계질서에 상대적인 선호를 보인다. 반면에 좌파 또는 자유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진보, 저항, 혼란, 융통성, 페미니즘, 평등 등에 대해 상대적인 선호 또는 관용을 보인다.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은 자유주의적 사람에 비해 체제정당화에 대한 일관된 선호를 보이기도 한다 (Jost et al. 2008; Jost et al. 2009).

그렇다면 기본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 간의 관계와 두 심리 변인이 정치태도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무엇인가? 캐프래라와 동료 연구자들(Caprara et al. 2006)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중도 좌파 유권자가 중도 우파 유권자에 비해 보편주의, 박애, 자기주도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에 안전, 권력, 성취, 동조와 전통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들은 또한 기본가치가 성격 특성보다 투표 이력과 미래 투표 의향을 더 잘 설명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한편, 서구 자유주의 복지 국가나 종교 영향이 강한 전통적 국가 모두 기본가치 중 보편주의와 박애는 좌파 또는 진보 정치이데올로기 정향(orientation)과 관계가 있고 동조와 전통은 우파 또는 보수 정치이데올로기 정향과 관계가 있는 반면에, 구공산권 국가에서는 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 정향 간에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들 가치는 정치이데올로기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사회경제적 변수보다 더 강한 것으로 구공산권 국가에서는 그보다 더 약한 것으로 전통 국가에서는 그 강도가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Piurko et al. 2011).<sup>7)</sup>

또한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16개국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최근 연구에서도 정치이데올로기에 대한 기본가치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대립적인 진보-보수 정치이데올로기 정향의 기저에는 관용과 모든 사람의 복지를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된 보편주의와 사회질서와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된 안전이라는 대립적 기본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대립적 기본가치는 대립적인 정치이데올로기 정향을 통해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Caprara et al. 2017). 한편, 조스트와 동료들

6) 성향과 정향은 큰 차이가 없는 서로 대체가능한 개념이지만 이 글에서는 원저자가 쓴 대로 썼다.

7) 서구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예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이 있고 전통국가로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있으며 탈공산권 국가로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이 있다.

(Jost et al. 2016)은 가치가 성격특성이 이데올로기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매개 역할을 하는지 혹은 이데올로기 성향이 성격특성이 특정 가치를 우선시하는 데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경로모형에 의하여 검토한 후 현재로서는 후자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가 있다고 밝힌다.

기본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 또는 정치태도 대한 한국사회 및 정치심리학 선행연구는 주로 기본가치와 편견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왔다. 예컨대, 김혜숙(2002)은 평등, 사회정의 관용 관련 기본가치인 보편주의가 북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 거리감을 낮추고 대북지원과 민간교류 정책을 찬성하는 진보적 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보편주의 가치는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장애인, 북한사람 및 호남사람 등 대표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련이 있고, 이들 약자집단을 위한 정책에 찬성하는 태도를 예측해주었다. 자기주도 가치는 소수자집단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없었지만 양성평등고용제에 대한 반대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김혜숙 2007).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유권자의 진보-보수 정치이데올로기 성향이 일반적으로 반공과 북한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구분되는 경향(강정인 2009; 강원택 2011)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평등 정책에 대한 지지가 진보 성향과 관련이 있으므로 보편주의가 진보 성향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현정 외(2015) 연구는 본격적으로 기본가치, 도덕성 기반(moral foundations) 그리고 성격 특질 등 기본 심리특성과 정치이데올로기, 정치태도, 투표 선택 간의 인과관계를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직전 인터넷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경로모형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서 성격이나 도덕성 기반에 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본 개인가치 10개 중 이론적으로 그리고 서구 경험적 연구에서 보수 정치이데올로기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전, 전통, 성취, 권력 가치에서 보수 후보로 인식된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이 진보 후보로 인식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높은 평균을 드러냈다. 또한 진보-보수 정치이데올로기 성향과 북한변화요구/북한지원, 경제성장/소득분배, 경제성장/환경보호, 현 사회 체제정당화 등의 정치태도에 있어서도 예측한 방향으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sup>8)</sup> 이들은 기본 개인가치가 정치태도에 영

8) 이들은 정치이데올로기 성향을 정책선호라는 정치태도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논의한 대로 정치이데올로기는 특성 적용의 한 형태로 단기적 선호와 태도에 영향을 주는 기본 심리특성의 하나라는 이해와 배치된다.

향을 주어 최종적으로 후보선택이라는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하에서는 서구 자료에 의존하거나 대표성이 제한된 표본에 의존해온 국내외 기존 정치심리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19대 대선 후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한국 유권자의 기본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 성향 분포 그리고 두 심리 요인의 관계와 정당 및 후보 선택에 대한 기본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III. 경험적 분석: 기본가치, 정치이데올로기,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선택

#### 1. 기본가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슈워츠가 고안한 가치묘사질문지(Portrait Value Questionnaire) 중 10개 항목을 이용하여 기본 개인가치를 측정했다. 참고로 이 10개 항목 기본가치 측정도구는 제5차 세계가치조사(WVS: World Values Survey 2005-2009)부터 포함되어 전 세계 인구의 약 90%의 가치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도 쓰이고 있다.<sup>9)</sup> 응답자는 개별 가치를 측정하는 10개 가치묘사 진술이 자신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비슷한지 “나와 대단히 비슷하다, 나와 아주 비슷하다, 나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 나와 약간 비슷하다, 나와 비슷하지 않다, 나와 전혀 비슷하지 않다”는 6점 척도로 답하게 되는데 각 진술이 대표하는 가치는 <표 2>와 같다.

어느 사회나 개인 수준에서 가치는 개인에 따라 선호순서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슈워츠가 제시한 10개 기본가치로 포괄되며 속성과 가치 간 관계에 따라 원형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는 삶의 원칙으로 시간과 상황에 초월하여 대상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한국의 개인가치구조와 분포를 파악하는 연구는 보편적 가치구조를 확인하는 작업이자 태도대상

9) 슈워츠의 가치측정도구는 일반적으로 개별가치도 다항목(multi-item)으로 측정하여 타당도를 높이고자 했으나 최근에는 설문조사의 한계를 고려하여 21개 항목으로 구성된 가치묘사질문지(PVQ-21)와 같은 축약판을 도입했고 본 조사에서는 세계가치조사처럼 PVQ-21 중에서 10개 항목을 추출하여 기본가치를 각각 하나의 항목으로 측정하도록 했다.

〈표 2〉 기본가치와 가치묘사 진술문

기본가치	가치묘사 진술문
자기주도	이 사람에게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 방법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력	이 사람에게게는 부유하게 살고, 돈이 많아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	이 사람에게게는 주변이 안전하여 위험이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쾌락	이 사람에게게는 많은 시간을 갖고 자신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박애	이 사람에게게는 사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취	이 사람에게게는 성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극	이 사람에게게는 모험심과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조	이 사람에게게는 비난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정도를 걷는 것이 중요하다.
보편주의	이 사람에게게는 자연보호가 중요하다.
전통	이 사람에게게는 전통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 대한 국민의 일반 선호를 가늠하려는 시도이다. 가치는 추구하는 내재적 동기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그 구조와 분포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변화시키기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기본가치 구조와 분포는 특정 정치적 대안과 정책이 국민 일반에게 수용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기본 개인가치 분

〈표 3〉 슈워츠 기본 개인가치 분포

(단위: 명, %)

기본가치	대단히 비슷하다	아주 비슷하다	어느 정도 비슷하다	약간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다	전혀 비슷하지 않다	계
자기주도	23	136	330	346	149	18	1,002
	2.30	13.57	32.93	34.53	14.87	1.80	100.0
자극	38	178	313	275	163	35	1,002
	3.79	17.76	31.24	27.45	16.27	3.49	100.0
쾌락	51	275	315	242	110	9	1,002
	5.09	27.45	31.44	24.15	10.98	0.90	100.0

성취	64	283	349	198	103	5	1,002
	6.39	28.24	34.83	19.76	10.28	0.50	100.0
권력	11	107	274	214	329	67	1,002
	1.10	10.68	27.35	21.36	32.83	6.69	100.0
안전	132	295	329	180	53	13	1,002
	13.17	29.44	32.83	17.96	5.29	1.30	100.0
동조	107	330	332	177	48	8	1,002
	10.68	32.93	33.13	17.66	4.79	0.80	100.0
전통	40	272	365	229	86	10	1,002
	3.99	27.15	36.43	22.85	8.58	1.00	100.0
박애	50	257	377	227	84	7	1,002
	4.99	25.65	37.62	22.65	8.38	0.70	100.0
보편주의	110	334	313	205	38	2	1,002
	10.98	33.33	31.24	20.46	3.79	0.20	100.0

포는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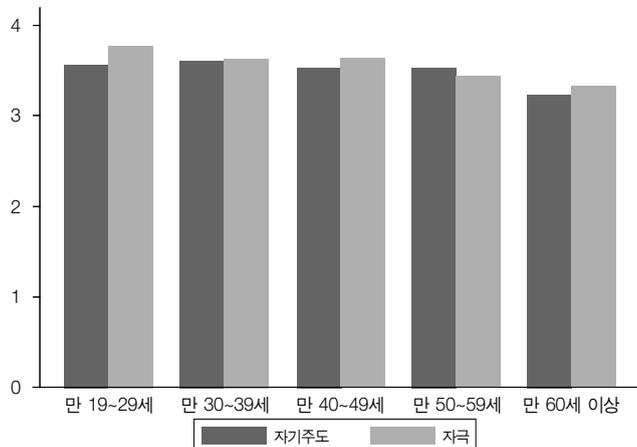
응답자들은 대체로 보편주의, 동조, 안전 등의 가치를 다른 기본가치에 비해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선호에 대해 “대단히 비슷하다”와 “아주 비슷하다”로 응답자의 비율이 44.3%, 43.6%, 42.6%로 나타났다. 보편주의에 대한 높은 선호는 내용상 평등과 조화에 대한 추구를 의미하므로(<표 1> 참조), 평등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갈등회피(조화)라는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 선호가 동시에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동조와 안전 가치는 ‘보수’라는 상위차원 가치로 포괄되는데, 이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상유지 또는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서구와 국내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보편주의에 대한 선호가 지난 WVS 한국조사 결과(2005년 32.7%, 2010년 37.2%)에 비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 현상이 상대적으로 진보적 인물이 당선된 후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보적 정치이데올로기와 친화적인 기본가치를 중시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실제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인지 장기적으로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 사회 가치 분포를 좌우하는 변수로 무엇보다 세대를 들 수 있다. 또한 성년 이전에 형성된 가치가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를 고려한다면 청년세대와 성년 이후 세대와의 가치비교는 향후 이데올로기 지형을 가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Inglehart 1990; 1997). 따라서 10개 기본가치를 4개 상위차원 가치로 묶어 세대별로 차이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각 가치는 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최저 1점 최고 6점)를 나타내도록 재코딩해서 막대높이가 세대별 평균을 나타내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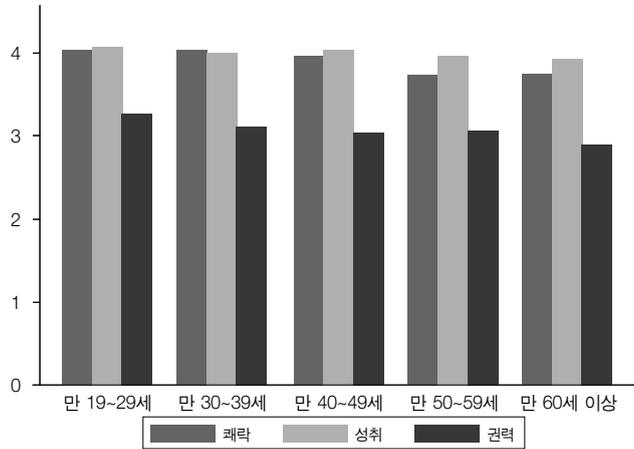
우선 세대별 자기주도와 자극 가치의 분포를 살펴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자기주도와 자극 가치에 대한 선호가 높고 특히 5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차이가 뚜렷하며 자극 가치에 대한 젊은 층의 선호가 두드러진다(〈그림 2〉 참고). 이 같은 결과는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된 젊은 세대일수록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두드러진다는 경험적 사실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서구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진보 성향과 자기주도 및 자극 가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Capara et al. 2006; Piurko et al 2011). 다만, 상위차원 가치인 변화에 대한 개방성을 구성하는 이 두 가치에 대해서 전 세대에 걸쳐 “나와 약간 비슷하다”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선택지 사이를 의미하는 평균 약 3.5점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사 대상 기본가치 중 권력 가치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선호가 드러난 가치항목으로 정치이데올로기 성향과의 친화성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정보를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상위가치인 자기고양 가치로 묶여지는 쾌락, 성취, 권력 가치의 세대별 분포 〈그림 3〉

〈그림 2〉 세대별 변화에 대한 개방 가치(자기주도와 자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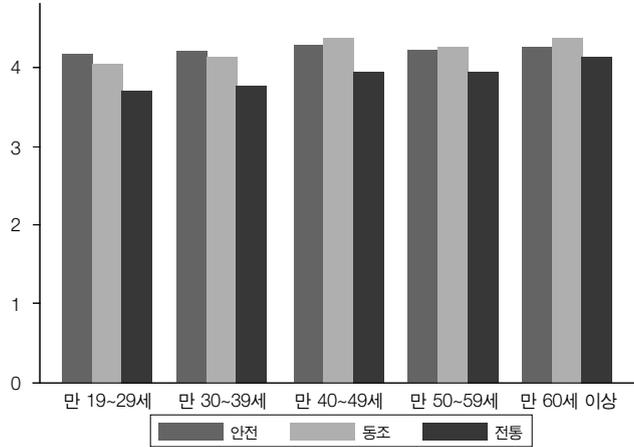
〈그림 3〉 세대별 자기고양 가치(쾌락, 성취, 권력) 분포



을 살펴보면, 먼저 쾌락가치에 있어서 40대 이하와 50대 이상 세대의 차이가 뚜렷함은 눈에 띈다. 기존 가치연구에서 ‘쾌락’이라는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명칭으로 분류되고 있긴 하지만, 단일 묘사진술문에 의하면 “많은 시간을 갖고 자신을 즐기는 것”이라는 가치 내용이기 때문에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가치로 볼 수 있고 또한 진보 성향과 관련이 있는 변화에 대한 개방이라는 상위가치에도 포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세대별 진보-보수 정치이데올로기 분포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한편, 성취가치는 세대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나와 약간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평균 4점대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 10개의 기본가치 중 가장 낮은 선호가 나타난 권력가치가 세대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20대에서 그 선호가 가장 높은 것 드러났다. 선행연구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대립적 기본가치가 대립적 정치이데올로기 성향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맞는다면 진보 성향과 관련이 있는 보편주의와 박애라는 자기초월 가치와 대립적인 자기고양 가치에 대한 선호가 전 세대에 걸쳐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보수 정치이데올로기 담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실 한국 유권자에 대한 보수 정치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은 아래에 살펴 볼 기본가치로서 보수주의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치내용상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수 정치이데올로기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위가치로서 보수주의 가치의 세대별 분포 〈그림 4〉를 보면 그 구성가치인 안전, 동조, 전통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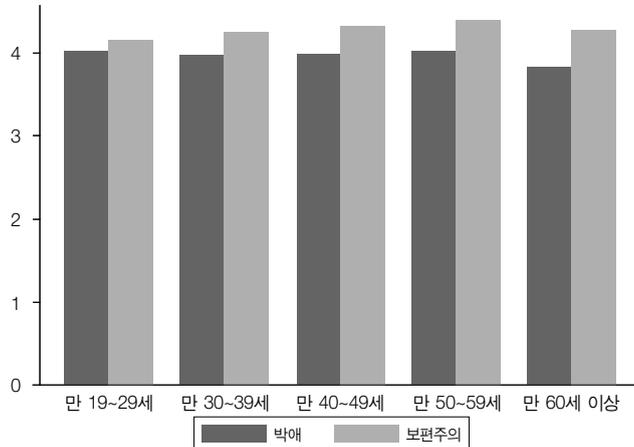
〈그림 4〉 세대별 보수주의 가치(안전, 동조, 전통) 분포



특히 안전과 동조 가치의 세대별 평균이 4점 이상으로 다른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도 알 수 있다. 안전 가치는 세대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높은 선호를 받았는데 이것이 세월호 사건 이후 변화된 국민의식을 반영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분포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지 추후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로 지난 WVS 한국조사에서도 동조와 안전 가치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는데 2005년, 2010년 조사에서 동조는 각각 50.6%, 52.2% 안전은 각각 37.4% 45.1% 비율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느 정도는 보수 정치 담론의 영향력이 상당 기간 견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 보인다. 한편, 전통 가치는 40대 이상과 그 아래 세대의 차이가 비교적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치가 현재 세대 간 갈등을 상당 부분 설명하는 기본가치라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보편주의와 박애로 이루어진 상위가치인 자기초월 가치 선호에 대한 세대별 분포 〈그림 5〉를 보면, “평등, 내적조화, 세계평화, 자연과의 조화, 지혜, 아름다운 세상, 사회정의, 관대한, 환경을 보호하는” 등을 포괄하는 보편주의는 전 세대에 걸쳐 고르게 높은 선호가 나타난 가운데 특히 40대와 50대에서 높은 선호가 드러났다. “영적인 삶, 의미 있는 삶, 성숙한 사랑, 참된 우정, 충성스러운, 용서하는, 도움이 되는, 정직한, 책임감 있는” 등을 나타내는 박애도 60대 이상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가 나타나긴 했지만 비교적 전 세대에 걸쳐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행연구에서 진보 정치이데올로기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보편주의와 박애에 대해 세대에 걸쳐 높은 지지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한국 유권자의 기본가치배열이 앞으로도 진보 정치이데

〈그림 5〉 세대별 자기초월 가치(박애와 보편주의) 분포



올로기 담론에 상대적으로 친화성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다른 세대와 뚜렷이 구분되는 진보적 성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소위 386세대(노환희·송정민 2013)에서 보편주의 가치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정치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기본가치의 영향력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2. 기본 심리특성과 사회경제변수 간의 관계

이번 조사에서는 정치이데올로기 자기평가와 기본가치 간에는 선행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도 있었지만(자기주도  $r=-0.096$  전통  $r=.065$ ; 상위가치로서 변화에 대한 개방  $r=-.088$ ), 그 크기도 크지 않고 다른 가치와는 대체로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기본가치와 정치태도와 선택을 매개하는 정치이데올로기 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하기보다는 두 심리특성 변인과 사회경제 변수 그리고 정당 및 후보 선택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우선 사회경제 변수에 따라 정치이데올로기 자기평가와 변화에 대한 개방, 보수, 자기초월, 자기고양의 4개 상위가치 그리고 성격특질로 분류되는 권위주의 성향의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sup>10)</sup> 〈표 4〉는 연령을 포함하여 성별, 학력,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적

10) 정치이데올로기 자기평가는 매우 진보를 0, 중도를 5, 매우 보수를 10으로 하여 응답자가 0에서 10 사이의

변수에 따른 기본 심리특성 변인의 평균비교를 나타낸다. 먼저 성별에 따른 기본 심리특성 변인 평균 차이는 대체로 없어 보인다. 예컨대, 여성(M=5.19)이 남성(M=5.02)보다 조금 더 보수 성향으로 자기평가를 하고 있지만 두 집단 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다( $p=0.168$ ).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성차가 나타난 심리특성은 변화에 대한 개방 가치로 남성(M=3.63)이 여성(M=3.40)보다 높게 지지하고 있다. 자율과 자극 그리고 자기초월 가치에도 걸쳐 있는 쾌락으로 구성된 변화에 대한 개방 가치는 상위차원으로서 보수와 대립적인 가치로서 상대적으로 진보 정치이데올로기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 여성 유권자의 보수 성향 기저에 기본가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김혜숙 2002, 2007; 최영진 2004; 윤광일 2013).

〈표 4〉에 나타난 세대와 기본 심리특성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세대 대신 만 나이 기준 연령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연령은 예상대로 정치이데올로기 성향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 $r=0.305$ ,  $p<0.05$ ) 곧, 나이가 들수록 보수 성향을 나타내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연령은 상위차원 가치로 보수 정치성향과 관련이 있는 보수와 양의 상관관계( $0.108$ ,  $p<0.05$ )를 진보 정치성향과 관련이 있는 변화에 대한 개방과 부의 상관관계( $-0.142$ ,  $p<0.05$ )를 나타내어 정치이데올로기와 기본가치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경험적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다.<sup>11)</sup> 참고로 연령은 권위주의 성향과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0.196$ ,  $p<0.05$ ). 이와 같은 결과는 기본 심리특성 변인이 성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가치와 권위주의 성향과

---

숫자로 답하게 했다. 한편, 본 연구 주제는 아니지만 보수 정치이데올로기 성향과 관련 있는 성격특성으로 알려진 권위주의 성향도 참고로 살펴보았다. 이는 5점 척도로 동의 정도를 묻는 7개 진술(①우리나라를 망쳐 놓고 있는 극단주의와 싸워서 끝장낼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②정부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들을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③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너무 심각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우리나라를 옳은 길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라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④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권'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질서이다. ⑤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경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⑥최근의 범죄나 성적 타락, 사회적 혼란을 보면, 우리의 가치관과 법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말썽꾼들과 문제 집단들을 더 강력히 척결해야 한다. ⑦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의 지휘에 잘 따르는 질서정연한 국민들이다.)을 이용하여 평균으로 측정했다.

11) 연령과 기본가치 간 상관관계 중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p<0.05$ ) 것을 살펴보면 자기주도(-0.106) 자극(-0.127), 쾌락(-0.102), 권력(-0.084), 동조(0.098), 전통(0.148), 보편주의(0.0363) 등이 있다. 다른 기본가치와 달리 보편주의와 권력은 비록 낮은 상관관계 계수이지만 연령에 따른 정치이데올로기 성향과 다른 양과 부 방향으로 각각 나타났다. 김혜숙(2002; 2007)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이와 같은 결과는 젊은 세대가 개인주의적 성취를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나은영·차유리 2010).

〈표 4〉 사회경제변수와 정치이데올로기, 권위주의 성향, 기본가치 평균비교

	N	진보-보수 M(SD)	권위주의 M(SD)	개방 M(SD)	보수 M(SD)	자기초월 M(SD)	자기고양 M(SD)
<b>성별</b>							
남	497	5.02(2.04)	3.35(0.56)	3.63(0.89)	4.15(0.82)	4.11(0.86)	3.66(0.78)
여	505	5.19(1.91)	3.31(0.61)	3.40(0.91)	4.12(0.85)	4.10(0.86)	3.63(0.79)
<b>연령</b>							
만 19~29세	175	4.40(1.60)	3.15(0.61)	3.67(0.84)	3.97(0.79)	4.07(0.83)	3.79(0.74)
만 30~39세	176	4.62(1.85)	3.27(0.49)	3.61(0.88)	4.04(0.74)	4.10(0.85)	3.71(0.75)
만 40~49세	208	4.85(1.83)	3.30(0.61)	3.60(0.88)	4.20(0.86)	4.14(0.85)	3.68(0.80)
만 50~59세	199	5.24(1.94)	3.39(0.61)	3.49(0.91)	4.15(0.88)	4.19(0.93)	3.58(0.85)
만 60세 이상	244	6.06(2.09)	3.48(0.54)	3.28(0.96)	4.25(0.84)	4.04(0.82)	3.52(0.76)
<b>학력</b>							
중졸 이하	157	5.86(2.08)	3.54(0.48)	3.11(0.94)	4.12(0.87)	3.91(0.83)	3.44(0.74)
고졸 이하	418	5.14(1.99)	3.37(0.56)	3.58(0.89)	4.18(0.86)	4.17(0.85)	3.65(0.80)
대졸 이상	427	4.79(1.85)	3.22(0.61)	3.60(0.88)	4.10(0.78)	4.11(0.86)	3.72(0.78)
<b>가구소득</b>							
200만 원 미만	140	5.51(2.32)	3.45(0.55)	3.23(1.01)	4.13(0.92)	3.99(0.93)	3.45(0.80)
200~300만 원	166	5.25(1.87)	3.43(0.58)	3.41(0.97)	4.23(0.90)	4.12(0.95)	3.58(0.86)
300~400만 원	208	5.10(1.94)	3.36(0.55)	3.59(0.81)	4.14(0.82)	4.18(0.83)	3.71(0.74)
400~500만 원	201	4.91(1.84)	3.30(0.60)	3.56(0.82)	4.14(0.81)	4.07(0.84)	3.69(0.76)
500만 원 이상	286	4.95(1.95)	3.21(0.60)	3.63(0.91)	4.07(0.76)	4.11(0.79)	3.71(0.78)
Total	1001	5.10(1.98)	3.33(0.58)	3.52(0.91)	4.13(0.83)	4.10(0.86)	3.65(0.79)

같은 성격특성은 더욱더 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향후 한국사회 이데올로기 지형이 진보 성향에 기운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학력에 따른 기본 심리특성 변인의 평균 차이는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후 튜키(Tukey HSD) 짝비교 사후검정을 통해 파악했다. 대체로 중졸 이하 학력과 고졸 이상 학력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예컨대, 중졸 이하 학력에서는 보수

정치성향(M=5.86)이 나타났고 고졸과 대졸 이상에서는 중도(M=5.14) 또는 진보(M=4.79) 정치성향이 드러났으며 고졸과 대졸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또한, 보수와 진보 정치이데올로기 정향을 뒷받침하는 성격특성으로 변화에 대한 개방가치와 자기초월 가치에서도 같은 관계가 나타났다. 곧, 중졸 이하인 경우에 개방과 자기초월 가치 지지가 낮고 고졸과 대졸 이상은 의미 있는 차이는 없지만 두 상위가치에 대해 중졸 이하 집단보다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 한편, 권력과 성취로 이루어진 상위가치인 자기고양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중졸 이하와 고졸 이상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상위차원 가치로서 보수에는 학력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권위주의 성향은 학력이 높을수록 낮고, 세 범주 간 모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과 기본 심리특성 변인 간의 관계를 일원변량분석 후 튜키 짝비교 사후검정으로 분석해 본 결과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과 300만 원 이상 또는 400만 원 이상 가구소득을 올리는 중산층 이상 간의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보수 정치성향(M=5.51)을 나타냈으며, 다른 집단과 달리 상대적으로 진보 정치성향을 나타낸 400~500만 원 가구소득층(M=4.91), 500만 원 이상 가구소득층(M=4.95)과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진보 정치이데올로기 정향을 뒷받침하는 가치에도 같은 관계가 나타났는데 곧, 변화에 대한 개방 가치에 대해 2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층에서는 300만 원 이상 가구소득층에 비해 그 지지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드러났고 200~300만 원 소득계층을 제외하고는 다른 가구소득층과는 달리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관계는 개인주의 성향과 관계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기고양 가치에서도 나타났다. 한편, 보수와 자기초월 가치에 대해서는 가구소득층 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권위주의 성향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층과 최고소득층 간에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드러난 가운데 두 저소득층(200만 원 미만 M=3.45, 200~300만 원 M=3.43)의 권위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기본 심리특성과 정당지지 및 투표결정 간의 관계

그렇다면 정치이데올로기 자기평가와 기본가치 그리고 권위주의 성향이 대선후보지지 집단과 정당지지 집단 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표 5>는 제19대 대선후보 지지집단,

정당일체감 그리고 제18대 대선후보 지지집단의 기본 심리특성 변인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다. 각 지지집단의 평균 차이는 일원변량분석 후 튜키 짝비교 사후검정으로 분석했다. 우선 예상대로 진보 후보로 알려진 문재인 후보 지지집단(M=4.51)이 보수 후보로 알려진 홍준표 후보 지지집단(M=6.59)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두 지지집단은 중도를 나타내는 5점을 기준으로 보아도 명확하게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구분되고 있다. 홍준표 후보 지지집단은 다른 후보 지지집단에 비해서도 가장 보수적으로 드러났으며, 가장 진보 성향을 보인 심상정 후보 지지집단(M=4.47)은 물론이고 중도 성

〈표 5〉 대선 선택과 정당일체감 별 정치이데올로기, 권위주의 성향, 기본가치 분포

	N	진보-보수 M(SD)	권위주의 M(SD)	개방 M(SD)	보수 M(SD)	자기초월 M(SD)	자기고양 M(SD)
<b>제19대 대선</b>							
문재인	426	4.51(1.79)	3.30(0.59)	3.54(0.92)	4.15(0.84)	4.13(0.86)	3.63(0.79)
홍준표	197	6.59(1.88)	3.45(0.55)	3.45(0.85)	4.14(0.79)	4.05(0.80)	3.59(0.78)
안철수	147	5.17(1.87)	3.33(0.64)	3.61(0.95)	4.29(0.82)	4.26(0.86)	3.85(0.78)
유승민	47	5.04(1.57)	3.19(0.54)	3.63(0.93)	4.01(0.81)	4.20(0.83)	3.90(0.67)
심상정	30	4.47(1.59)	3.45(0.52)	3.38(0.81)	4.12(0.65)	4.12(0.69)	3.58(0.67)
소계	847	5.13(1.99)	3.34(0.59)	3.53(0.91)	4.16(0.82)	4.14(0.84)	3.67(0.78)
<b>정당일체감</b>							
더불어민주당	331	4.27(1.89)	3.28(0.61)	3.60(0.92)	4.19(0.85)	4.15(0.84)	3.67(0.81)
자유한국당	152	6.84(1.87)	3.51(0.52)	3.42(0.82)	4.18(0.82)	4.05(0.81)	3.58(0.78)
국민의당	39	4.82(1.37)	3.54(0.77)	3.85(0.97)	4.44(0.91)	4.51(0.78)	4.07(0.85)
바른정당	52	5.85(1.51)	3.31(0.58)	3.77(0.92)	4.20(0.70)	4.13(0.86)	3.85(0.73)
정의당	27	4.00(2.22)	3.02(0.59)	3.72(0.74)	4.26(0.79)	4.46(0.84)	3.79(0.65)
소계	601	5.08(2.15)	3.35(0.61)	3.59(0.90)	4.21(0.83)	4.16(0.83)	3.70(0.80)
<b>제18대 대선</b>							
박근혜	429	5.94(1.90)	3.39(0.54)	3.47(0.90)	4.14(0.81)	4.10(0.83)	3.59(0.76)
문재인	255	4.33(1.79)	3.32(0.65)	3.57(0.98)	4.28(0.84)	4.25(0.88)	3.74(0.85)
소계	684	5.34(2.01)	3.37(0.59)	3.51(0.93)	4.19(0.83)	4.15(0.85)	3.65(0.79)

향을 보인 안철수 후보 지지집단(M=5.17)과 유승민 후보 지지집단(M=5.04)과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홍준표 후보 지지집단을 제외하고는 각 후보 지지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각 후보의 정치이데올로기 위치와 부합하게 지지집단의 자기평가 평균이 나타난 편이지만 홍준표 후보 지지집단을 제외하고는 정치 성향이 의미 있는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도와 진보 성향 유권자의 선택이 자신의 주관적 정치성향 평가 외에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으리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보수와 진보 후보의 양자 대결이었던 제18대 대선에서도 박근혜 후보 지지집단(M=5.94)과 문재인 후보 지지집단(M=4.33) 간에도 후보의 인식된 정치이데올로기 위치에 부합하는 차이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드러냈다( $p < 0.00$ ).

“가깝게 느끼는 정당”으로 측정한 정당일체감에서도 예상대로 진보정당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지지집단(M=4.27)이 보수정당으로 알려진 자유한국당 지지집단(M=6.84)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두 지지집단은 중도를 나타내는 5점을 기준으로 보아도 뚜렷하게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구별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집단은 가장 진보 성향을 보인 정의당 지지집단(M=4.00)이나 진보에 가까운 중도 성향을 보인 국민의당 지지집단(M=4.82)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중도 보수 성향으로 나타난 바른정당 지지집단(M=5.85)과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자유한국당 지지집단은 다른 정당 지지집단에 비해서도 가장 보수적으로 드러났으며, 모든 집단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당 지지집단은 정의당 지지집단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의당 지지집단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바른정당 지지집단과는 통계적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보-보수 정치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한 정당배열이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라는 진보 성향 유권자 지지정당의 정당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보수 성향 유권자 지지정당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시사한다.

대선 후보 선택과 정당일체감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던 지지집단 간 정치이데올로기 자기평가 차이는 다른 기본 심리특성변인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변화에 대한 개방, 보수, 자기초월, 자기고양 등 4개 상위차원 가치 모두에서 제19대 대선 후보 지지집단 간 모두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교적 선택이 단순했던 제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지지집단이 박근혜 후보 지지집단에 비해 자기초월 가치(문재인 M=4.25 박근혜 M=4.10)와 자기고양 가치(문재인 M=3.74 박근혜 M=3.59)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보수(M=4.28)에 대

한 지지가 박근혜 후보 지지집단(M=4.14)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p < 0.05$ ).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5년이 지난 대선의 투표 선택에 대한 오기억(false memory) 가능성으로 해석에 신중해야겠지만 상위가치로서 보수가 안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세월호 이후에 강화된 문재인 지지집단의 기본가치 선호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sup>12)</sup> 한편, 정당일체감에 따른 지지집단 간의 선호가치 차이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지지집단에서만 그리고 자기초월과 자기고양가치에서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집단은 두 가치 모두 국민의당 지지집단에 비해 낮게 선호하는 있는데 이는 두 정당 지지자의 진보-보수 성향 차이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두 집단의 연령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자유한국당(M=3.51)과 국민의당(M=3.54) 지지자는 정의당(M=3.02) 지지자에 비해 높은 권위주의 성향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보이고 있다.

#### 4. 기본 심리특성과 제19대 대선 선택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사회경제변수를 통제한 가운데 정치이데올로기와 기본 개인가치가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결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자.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한국 투표행태 연구에서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으로 제시되어 온 출신지역과 정당일체감을 통제했으며, 정치이데올로기 성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경험적으로 드러난 권위주의 성향도 통제했다. 또한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경제변수와 기본 심리특성 변수뿐만 아니라 종속변수인 후보에 따라 달라지는 정당일체감과 정당과의 이념거리<sup>13)</sup>를 함께 포함시킬 수 있는 McFadden의 선택 모형 곧 대안-특정 조건부 로짓(alternative-specific conditional logit) 모형을 이용하여 각 변수의 독립적 영향력을 측정했다.

〈표 6〉은 조건부 로짓 모형에 의한 승산비 추정 결과를 담고 있는데, 상술한 경험적 분석에서 시사한 대로 이념거리와 정당일체감 영향이 다른 심리특성 변인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sup>14)</sup> 곧,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념거리가 짧은 후보를 선택할

12) 실제로 제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선택집단(M=4.42)은 박근혜 후보 선택집단(M=4.19)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안전가치 선호가 높았다.

13) 정당과의 이념거리는 응답자 자신의 정치이데올로기 평가와 같은 척도로 측정한 각 정당 이데올로기 평가 차이의 절댓값으로 측정했다.

14) 승산비는 1을 기준으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1보다 큰 경우에는 비교 대안보다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표 6〉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선택 조건부 로짓 모델(n=554)

	승산비(표준편차)			
	문재인 대 홍준표	안철수 대 홍준표	유승민 대 홍준표	심상정 대 홍준표
이념거리	0.865** (0.038)			
정당일체감	9.373*** (1.439)			
연령	0.546*** (0.100)	0.685 (0.134)	0.347*** (0.094)	0.410** (0.120)
여성	2.031 (0.758)	1.750 (0.692)	0.933 (0.564)	1.363 (0.882)
학력	1.786 (0.599)	1.746 (0.624)	5.173* (3.359)	3.165 (1.887)
소득수준	0.885 (0.144)	0.903 (0.155)	1.113 (0.291)	0.534* (0.140)
광주/전라 출신	9.163* (8.685)	5.502 (5.343)	4.990 (6.346)	1.433 (2.177)
대구/경북 출신	0.385 (0.208)	0.402 (0.219)	0.364 (0.317)	0.234 (0.266)
부산/울산/경남 출신	0.395* (0.175)	0.224** (0.117)	0.255 (0.191)	1.098 (0.790)
권위주의 성향	1.393 (0.474)	1.267 (0.442)	0.880 (0.436)	3.894* (2.398)
자기초월	0.558 (0.171)	0.611 (0.199)	0.721 (0.357)	0.658 (0.330)
자기고양	1.125 (0.334)	1.160 (0.371)	0.847 (0.435)	0.583 (0.319)
변화에 대한 개방성	0.837 (0.204)	0.785 (0.206)	0.622 (0.257)	0.688 (0.292)
보수	1.414 (0.423)	2.188* (0.713)	1.616 (0.850)	2.197 (1.147)

\* p&lt;0.05, \*\* p&lt;0.01, \*\*\* p&lt;0.001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능성이 높고 정당일체감이 있는 정당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상위가치 차원은 보수 가치만이 그것도 안철수와 홍준표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독립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적어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가치가 실제 의미가 있는 직접적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 후보인 홍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 후보인 문재인과 심상정을 선택할 확률이 낮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연령이 높을수록 홍준표에 비해 같은 보수 후보인 유승민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데올로기 성향 차이보다는 전략적 선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에는 학력의 독립적인 영향이 뚜렷했다. 곧, 다른 사회경제 변수와 심리특성 변인 모두 독립적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홍준표보다는 유승민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이 높을수록 홍준표보다 안철수를 선택할 확률은 낮았지만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아울러 상위가치 차원에서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로 추정된 보수 가치는 홍준표보다 안철수를 선택할 가능성을 독립적으로 높이는 쪽으로 드러났고 권위주의 성향은 예상과는 달리 홍준표보다 심상정을 선택할 가능성을 독립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의 의미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로 한국 유권자 선택에 지속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쳐 온 출신지역(이갑윤 2011)은 홍준표 대비 문재인에 대한 투표 확률을 크게 높인 호남과 문재인 출신지역이지만 의외로 확률을 낮춘 부산/울산/경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홍준표 대비 심상정에 대한 투표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낮춘 소득 효과와 안철수 출신지역임에도 홍준표 대비 투표 확률을 낮춘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 IV.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기본 심리특성으로서 유권자 선호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온 개인 기본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치심리학 논의를 소개한 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두 심리특성 변인과 정당 및 후보 선택에 대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관찰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이론적으로 정치이데올로기 정향에 선행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온 기본가치는 정당일체감과 후보 선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에 후보 선택 집단과 정당일체감 집단에 따른 정치이데올로기 정향의 차이는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보 후보와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집단과 보수 후보와 정당으로 알려진 홍준표와 자유한국당 지지집단의 진보-보수 성향차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택 집단 간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정치이데올로기 정향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당일체감과 사회경제변수와 출신지역을 통제한 모형에서 후보 선택에 독립적 영향을 미친 반면에 가치는 대체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변화에 대한 개방, 보수, 자기초월, 자기고양 등의 상위차원 기본가치는 대체로 정당과 후보 선택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사회경제 변수 중 세대는 정치이데올로기는 물론이고 가치와도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났다. 나이가 든 세대일수록 자신을 보수 정치성향으로 평가하고 있고, 보수 성향과 관련이 있는 보수 가치에 대한 지지도 높은 반면에, 진보 성향과 관련이 있는 변화에 대한 개방 가치에 대해서는 그 지지가 낮았다.

정치이데올로기 정향은 물론 정당일체감과 선택에 있어 기본가치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진보-보수 성향과 정당일체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난 사실은, 선행연구 결과대로 기본가치가 정치이데올로기 정향을 뒷받침하는 것이 옳다면 우리 정치이데올로기 지형이 근본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개인 기본가치는 특성 적응이라는 성격변인으로 성향과 함께 생태적 성격요소로서 변화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본 심리특성 변인이 성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향후 한국사회 이데올로기 지형이 진보 성향에 친화성 있는 구조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연령별 정치이데올로기 성향 차이와 이와 관련된 가치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온라인 조사 또는 편의표집에 기초한 국내 정치심리 가치연구와 비교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로 외적 타당성을 보완했고, 기본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 정향이라는 두 기본 심리특성 변인과 정당일체감과 후보선택이라는 정치적 변인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는 데 있어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대면 설문조사의 한계로 다항목으로 측정되지 않아 기본가치의 타당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그로 인해 이의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또한, 기본가치와 정당일체감 및 후보선택 간에 실제 의미 있는 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선행연구에서 양자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정치이데올로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없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기본 심리특성과 정치태도와 정당일체감, 후보 선택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론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권위주의 성향과 성격 5요인 등 성격 특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 보인다.

## 참·고·문·헌

- 강원택. 2011. “한국에서 정치 균열 구조의 역사적 기원: 립셋-룩칸 모델의 적용.” 『한국과 국제 정치』 27집 3호. 99-129.
- 강정인. 2009. “보수주의: 비동시성의 동시성 그리고 모호한 정상화.” 강정인·김수자·문지영·정승현·하상복. 『한국 정치의 이념과 사상: 보수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급진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김연신·최한나. 2009.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16.
- 김현정·박영옥·박상희. 2015. “유권자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들과 정치적 태도, 후보 선택에 관한 경로모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4). 103-32.
- 김혜숙. 2002.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35-50.
- \_\_\_\_\_.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 나은영·차유리. 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1979년, 1988년, 및 2010년의 조사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63-92.
- 노환희·송정민. 2013. “세대균열에 대한 고찰: 세대효과인가, 연령효과인가.”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파주: 나남.
- 서지영. 2012. “연령에 따른 가치구조의 발달.” 『한국발달심리학회지』 25(2). 21-44.
- 윤광일. 2013. “지역주의 투표.”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파주: 나남.
- 이갑윤. 2011. 『한국인의 투표행태』. 서울: 후마니타스.
- 최영진. 2004. “성의 정치심리학: 한국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과 투표행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2). 81-100.
- Bilsky, Wolfgang, and Shalom H. Schwartz. 2008. “Measuring Motivations: Integrating Content and Metho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8): 1738-51.
- Brosch Tobias, and David Sander. 2013. “Comment: The Appraising Brain: Towards a Neuro-Cognitive Model of Appraisal Processes in Emotion.” *Emotion Review* 5(2): 163-8.
- Caprara, G. V., & P. G. Zimbardo. 2004. “Personalizing Politics: A Congruency Model of Political Preference.” *American Psychologist* 59(7): 581-94.
- Caprara, Gian Vittorio, Michele Vecchione, Shalom H. Schwartz, Harald Schoen, Paul G. Bain, Jo Silvester, Jan Cieciuch, Vassilis Pavlopoulos, Gabriel Bianchi, Hasan Kirmanoglu, Cem Baslevant, Ctlin Mamali, Jorge Manzi, Miyuki Katayama, Tetyana

- Posnova, Carmen Tabernero, Claudio Torres, Markku Verkasalo, Jan-Erik Linnqvist, Eva Vondrkov, and Maria Giovanna Caprara. 2017. "Basic Values, Ideological Self-Placement, and Voting: A Cross-Cultural Study." *Cross-Cultural Research* 51(4): 388-411.
- Caprara, Gian Vittorio, Shalom Schwartz, Cristina Capanna, Michele Vecchione, and Claudio Barbaranelli. 2006. "Personality and Politics: Values, Traits, and Political Choice." *Political Psychology* 27(1): 1-28.
- Cieciuch, Jan, Shalom H. Schwartz, and Eldad Davidov. 2015. "The Social Psychology of Values."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nd. ed. James D. Wright, ed. Oxford: Elsevier, 41-6.
- Converse, Philip.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 In *Ideology and Discontents*, David E. Apter, ed. New York: Free Press, 206-61.
- Feldman, Stanley. 2003. "Values, Ideology, and the Structure of Political Attitudes." In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David O. Sears, Leon Huddy and R. Jervis, e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477-508.
- Inglehart, Ronald.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st, J. T. 2006. "The End of the End of Ideology." *American Psychologist* 61(7): 651-70.
- Jost, John T., Brian A. Nosek, and Samuel D. Gosling. 2008. "Ideology: Its Resurgence in Social, Personality, and Political Psycholog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2): 126-36.
- Jost, John T., Christopher M. Federico, Jaime L. Napier. 2009. "Political Ideology: Its Structure, Functions, and Elective Affiniti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1): 307-37.
- Jost, John T., Elvira Basevich, Eric S. Dickson, and Sharareh Noorbaloochi. 2016. "The Place of Values in a World of Politics: Personality, Motivation, and Ideology." In *Handbook of Value*, Tobias Brosch and David Sander, eds. Oxford University Press, 351-74.
- Kinder, Donald R. 1998. "Opinion and Action in the Realm of Politics." In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Daniel T. Gilbert, Susan T. Fiske and Gardner Lindzey, eds. Boston: McGraw-Hill; Oxford University Press, 778-867.
- Klingeman, Hans-Dieter. 1979. "Measuring Ideological Conceptualizations." In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Samuel H. Barnes and Max Kaase, ed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215-54.

- Kluckhohn, Clyde. 1951. "Values and Value-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An Exploration in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In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Talcott Parsons and Edward A. Shils, e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388-433.
- McAdams, D. P., and J. L. Pals. 2006. "A New Big Five: Fundamental Principles for an Integrative Science of Personality." *American Psychologist* 61(3): 204-17.
- Piurko, Y., S. H. Schwartz, and E. Davidov. 2011. "Basic Personal Values and the Meaning of Left-Right Political Orientations in 20 Countries: Basic Values and Meaning of Left-Right." *Political Psychology* 32(4): 537-561.
- Rokeach, Milton.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The Free Press.
- Schwartz, Shalom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Academic Press.
- \_\_\_\_\_. 2006. "A Theory of Cultural Value Orientations: Explication and Applications." *Comparative Sociology* 5: 137-82.
- \_\_\_\_\_. 2017. "The Refined Theory of Basic Values." In *Values and Behavior: Taking a Cross Cultural Perspective*. Sonia Roccas and Lilach Sagiv, eds.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51-72.
- Schwartz, Shalom H., and Wolfgang Bilsky. 1987. "Toward A Universal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3): 550-62.
- Schwartz, Shalom H., Jan Cieciuch, Michele Vecchione, Eldad Davidov, Ronald Fischer, Constanze Beierlein, Alice Ramos, Markku Verkasalo, Jan-Erik Lönnqvist, Kursad Demirutku, Ozlem Dirilen-Gumus, and Mark Konty. 2012. "Refining the Theory of Basic Individual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4): 663-88.
- Schwartz, Shalom H., Gian Vittorio Caprara, and Michele Vecchione. 2010. "Basic Personal Values, Core Political Values, and Voting: A Longitudinal Analysis." *Political Psychology* 31(3): 421-52.

접수일자: 2017년 10월 13일, 심사일자: 2017년 11월 24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13일

**[Abstract]****Basic Personal Values, Political Ideology,  
and Political Choice:****The Case of the 19<sup>th</sup> Presidential Election**

Yoon, Kwang-II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basic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choices in order to understand voters' political preference formation process in an integrated approach.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dataset collected after the 19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in 2017, it attempt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Schwartz' basic personal values and ideological self-placement and the influence of those basic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party and candidate choices. The study finds that basic personal values, which have been suggested to predict one's ideological self-placement, turned out not to influence his or her party identification or candidate choice directly while there was a stark ideological contrast among different party and candidate supporters. Specifically, there was even stronger ideological contrast between the supporters of Moon Jae-in and those of Hong Jun-pyo as well as between the supporters of Democratic Party and those of Liberty Korea Party. Moon and Democratic Party have been perceived as progressive while Hong and Liberty Korea Party as conservative. The study also finds that party identification influenced one's candidate choice while basic personal values did not, according to McFadden conditional logit model estimation. There was no distinct contrast of such basic values as openness to change, conservatism, self-transcendence, and self-enhancement among different party and candidate supporters. Yet, it finds that older generations seem to perceive themselves as more conservative and subscribe conservatism more as basic personal values than younger generations do.

---

■ Keyword: Schwartz basic personal values, political ideology, the 19<sup>th</sup> presidential election

